

중공군 5차 전역 2단계 작전간 피·아 작전지도에 관한 고찰

— 현리지역 전투를 중심으로 —

鄭 明 福*

1. 서 론
2. 6·25전쟁시 중공군 개입과 전역별 중공군 공세의 특징
3. 중공군 5차 전역 2단계 작전과 현리지역 전투
4. 중공군과 미 8군의 작전지도 분석
5. 결 론

1. 서 론

6·25전쟁은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역사적 사건으로써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소련·중국 등의 문서 공개로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

공해 주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일반 역사학자들까지 참여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¹⁾ 하지만 6·25전쟁에 대한 작전지도 및 작전술 차원에서의 연구는 학문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주로 군내 교육용으로 연구되어 왔다.²⁾

본고에서는 6·25전쟁시 중공군과 유엔군의 전쟁수행을 개관하고 5차 전역 2단계 작전(중공군 5월 공세)을 중심으로 작전지도를 분석함으로써 작전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대규모 전투였던 현리지역 전투에서의 피·아작전 지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작전지도란 용어는 ‘작전’이라는 단어와 ‘지도’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서 ‘작전’이란 “전략, 전술, 근무, 훈련 및 행정임무에 관한 군사적인 행동 또는 그 수행”이라는 포괄적 의미와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투수행과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³⁾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작전지도란 “지휘관 의도에 기초하여 작전개념을 발전시켜 계획 및 명령을 작성하고 작전준비 간 예행연습, 확인 및 감독 등을 통해 자신의 의도에 대한 숙지상태를 확인하며 작전실시간 적시 적절한 상황 조치 및 작전시행 등을 통해 예하부대를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하여 임무를 달성토록 하는 것”이다. 즉,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작

1) 국내 대표적인 연구로써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연구: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경희대, 1996);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연구: 미국의 전쟁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 1986) 등이 있고, 국외 대표적인 연구로써 Anatoly Torknov, 허남성·이종관 역,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과정·종결』(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eter Lowe, 김시완 역, 『한국전쟁 기원』(인간사랑, 1989) 등이 있다.

2) 대표적인 연구로써 전종순, 『중공군의 정월공세시 리지웨이와 팽덕회의 작전지도』, 『군사』 제45호(육군본부, 2002. 4); 조창래, 『한국전시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고찰』(연구논문, 육군대학, 2000) 등이 있다.

3)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교참101-20-1(충남 계룡대, 육군인쇄창, 1999), p. 435.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장

준비 및 실시간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야전군급 이상 계대로 설정하여 작전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중공군에 대한 분석은 항미원조지원군 사령관인 팡덕회가 예하의 병단과 군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투를 효과적으로 이끈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5차 전역 1단계 작전종료 후 대부대를 이동시켜 2단계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작전적 기습을 달성하고 3원포위를 통하여 한국군 섬멸의 작전목적은 어떻게 추구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유엔군에 대한 분석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Ridgeway)와 8군사령관 밴플리트(Vanfleet) 장군이 작전 초기에 중공군에게 기습과 전투력 집중에 의해 돌파를 당하게 되었지만 적시적인 전투력 운용을 통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제반활동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작전술 계대의 작전지도 개념을 적용하여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작전지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6·25전쟁시 중공군 개입과 전역별 중공군 공세의 특징

(1) 중공군 개입 요인⁴⁾

중공군이 참전할 무렵 중국은 국공내전(國共內戰)으로 국민당 정부를 대

4) 육군대학, 「6·25전쟁사 부도」(대전: 육군인쇄창, 2001), p. 117: David Tsui는 China'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May 1949~July 1951, ST. Antony's College, Trinity Term, 1998. 논문에서는 중공군이 한국전 참전과정에서 24가지의 목표를 가졌던 것으로 밝히면서 그 중 중요한 것들을 11가지로 요약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臺灣)으로 축출하고 공산정권을 수립(1949년 10월 1일)한 지 일 년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다. 이들은 최우선 '혁명과업으로 추진하던' 대만 수복(收復)도 이루지 못한 채 현안으로 안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공산정권 하에서 국민의 통합을 이룩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전쟁에 의해 피폐된 산업의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면 군사적으로는 비대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의 대복원(大復員)을 단행하여 현대적 조직으로 재편성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같이 '혁명'이 완성되지 못했으며, 도처에서 국민당 잔존세력의 도전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국군이 북진을 단행하던 날인 10월 1일에 스탈린과 김일성으로부터 파병지원 요청을 받자 '순망치한(唇亡齒寒)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날 밤(10월 2일)에 참전을 결정하였다.⁴⁾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중국문화권에 속하며 그들의 안보에 이와 입술(唇亡齒寒)의 관계로 보아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외세의 진출은 그들의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역사적 교훈에 따라 최소한 우호국 내지 완충지대로 있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또한 베이징 정권의 기본정책으로 볼 때 중국이 안보문제와 대만, 티베트 지방의 실지회복,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아시아에서의 역할증대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당면문제 해결에 시급했다. 따라서 중공군을 파병하여 전투를 공산측의 승리로 매듭짓게 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일거에 달성 가능하고, 국내의 모든 반혁명, 반공세력을 진압하여 신생정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파병의 대가로 1차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소련으로부터 획득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6·25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공

1) 북한의 救濟 2) 스탈린의 의심 제거 3)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전 참전 경험 4)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촉진 5) 중국 경제 재건의 활성화 6) 대만 해방에 필요한 중국의 역량 강화 7) 유엔군 개입 8) 남한영토와 (대만으로부터의) 미군철수의 맞교환 9) 대만 내 국민당 세력에 대한 (본토로의) 誘引 10) 미국의 보복이나 중국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의 제거 11) 남북한을 전쟁 前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결국 중국은 한반도를 지배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군은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던 10월 19일을 전후해 은밀히 압록강을 도하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하게 된 직접요인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적개심으로 이는 양국간 이데올로기 차이뿐 아니라, 미국의 장개석 정부에 대한 지원과 6·25전쟁 발발 이후 수차례 계속된 중국의 대미경고를 무시한데 이유가 있다.⁵⁾

(2) 전역별 중공군 공세의 특징

중공군은 1950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모두 2년 9개월 동안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항미원조지원군 명분 아래 참전한 중공군의 공세는 5차 전역까지 운동전시기와 이후 진지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5차 전역 이전까지의 작전단계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전역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 군을 집중하여 구성, 태천, 희천, 덕천, 영원지구에서 한국군 제6·7·8사단을 각개

<표 1> 중공군 5대 공세

| 구 분 | 기 간 | 작전일수 | 주요 전투 | |
|---------------|-------------------------|--------------------|--------------|-------------|
| 1차 전역(10월 공세) | 1950. 10. 25~11. 5 | 12 | 운산, 비호산 전투 | |
| 2차 전역(11월 공세) | 1950. 11. 25~12. 8 | 14 | 장진호, 군우리 전투 | |
| 3차 전역(신정 공세) | 1950. 12. 31~1951. 1. 8 | 9 | 1·4후퇴, 원주 전투 | |
| 4차 전역(2월 공세) | 1951. 2. 11~ 2. 15 | 5 | 횡성, 지평리 전투 | |
| 5차 전역 | 1단계(4월 공세) | 1951. 4. 22~ 4. 29 | 8 | 사창리 전투 |
| | 2단계(5월 공세) | 1951. 5. 16~ 5. 21 | 6 | 현리, 병커고지 전투 |

5) 앞의 책, p. 119.

섬멸할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이다.⁶⁾ 중공군이 최초로 유엔군과 접전한 전역으로서 주요 전투로는 중공군이 미군과 최초 교전한 운산 전투와 비호산 전투 등이 있다. 1차 전역시 “화력이 미약한 국군부대를 선정하여 돌파한 후에 유엔군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중요 목을 차단하고 철수하는 유엔군을 격멸한다”는 중공군의 작전기도는 자체적인 보급능력의 부족과 국군 및 유엔군 부대들의 선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1차 전역을 통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시키고 후속부대 전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군과의 전투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⁷⁾ 작전결과 전 전선이 청천강 이남 30마일 뒤로 조정되었으며 원산의 미 제3사단 일부마저 증원차 기동하게 되었다.⁸⁾

둘째, 2차 전역은 19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청천강 동쪽 해안의 한국군 2군단을 섬멸하여 전역 돌파구를 열고, 모든 전역에서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 목적으로 실시한 작전이다.⁹⁾ 주요 전투로는 군우리 전투와 미 해병1사단이 철수시 심대한 손실을 입었던 장진호 전투 등이 있다. 2차 전역시에도 중공군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편성된 방어진지를 공격하지 않았다. 반드시 야간공격을 실시하되, 소수의 병력으로 후방에 있는 지휘소를 기습하고 주요 목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상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후방으로 철수할 때를 기다려 격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⁰⁾ 작전결과 유엔군은 평양-원산에 연하는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셋째, 3차 전역은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8일까지 한국군 6사

6)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 박동구 역(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25.

7) 최용호·최용성, 「6·25전쟁의 이해」(서울: 양서각, 2008), p. 277.

8)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부도」(서울: 황금알, 2007), p. 116.

9)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141.

10) 최용호·최용성, 앞의 책, p. 282.

단과 1사단을 소멸하고 38도선을 장악한 후 이어서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미·영의 38도선을 이용한 정전음모를 물거품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작전이다.¹¹⁾ 주요 전투로는 1·4 후퇴와 원주 전투 등이 있다. 3차 전역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미리 방어준비가 된 유엔군에 대하여 대규모로 진행된 공격작전이었다. 작전결과 유엔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수도 서울을 내어주고 37도선(평택-안동-삼척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넷째, 4차 전역은 1951년 1월말 반격에 나선 유엔군의 작전에 따라 전선이 30~60km 북상하게 되자 1951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부전선에서 유엔군의 주력을 포착하여 섬멸한다는 작전목적을 두고 실시한 작전이다. 주요 전투로는 횡성 전투와 미 2사단 23연대가 중공군에게 고립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던 지평리 전투 등이 있다. 중공군은 4차 전역에서 다층우회포위 전법과 전술면에서 분할포위 전법을 채택하였다.¹²⁾ 작전결과 중공군은 전투에 패배하여 2월 15일 후퇴를 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은 킬러(Killer) 작전을 개시하면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공군 공세는 4차 전역까지 기습과 야간공격, 다층우회 분할포위라는 작전적·전술적 특징이 있었다. 또한 3차 전역시에는 최초 38도선 확보의 작전목적을 두고 작전을 전개하였지만 유엔군의 방어력이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수도 서울 함락이라는 목표를 변경하는 작전의 융통성도 보여주었다. 5차 전역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엔군의 몇 개 사단을 소멸시킴으로써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중서부전선에 주력을 지향하였던 1단계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팽덕회는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섬멸이라는 작전목적 달성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 2단계 작전을 실시하였다. 5차 전역은 피·아가 수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강약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실시한 전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중공군은 모택동식 군사사상에서 출

발한 모든 전술을 적용하였다.

2단계 작전시 중공군은 속전속결, 다로층층포위, 돌파에 의한 신속한 우회 및 퇴로차단, 기습 등을 통하여 한국군 4개 사단을 섬멸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3. 중공군 5차 전역 2단계 작전과 현리지역 전투

5차 전역 2단계 작전 중 현리지역 전투시 중공군은 2개 군 6개 사단을 7사단 전방에 집중하여 오마치와 침교 일대를 차단하였다. 당시 3군단은 현리일대 대 돌파구가 형성되고 주보급로를 차단당하는 등 전방 및 측후방이 포위됨으로써 대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3군단 좌측 미 10군단의 효과적인 방어와 미 8군의 적시적인 작전지도를 통하여 중공군을 저지한 후 반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공군 참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1) 중공군의 지휘체계와 작전계획

1) 지휘체계

1950년 12월 8일 주은래는 팽덕회로부터 김일성과의 회담을 보고 받은 뒤 중앙을 대표해서 중조연합사 성립에 관한 중조 양측의 합의사항을 작성 후 중조연합사령부를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도부구성에 있어서는 중조연합사 사령관과 정치위원은 팽덕회가 맡으며 북한측 부사령관은 북한군 총참모장 김웅으로, 부정치위원은 박일우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조선북한군 참모장 김웅은 동부전선에서 3개 북한군 군단(2·3·5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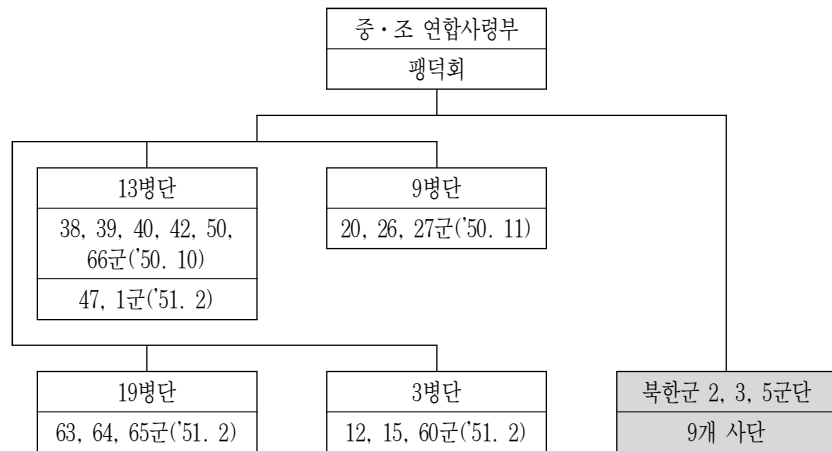
1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267.

12) 앞의 책, p. 364.

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참모부의 동일장소 근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신에 부정치위원인 박일우는 지원군 사령부에 머물렀다. 그리고 북한군은 지원군 사령부에 중령급을 조장으로 하는 3, 4명의 연락조를 파견하여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¹³⁾

연합사령부 기구는 모든 작전범위와 전선에서의 활동을 관할하며, 후방 동원·훈련·군정·경비 등은 북한정부가 직접관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전지휘를 포함하여 수송과 관련된 철로·운수·수리 부문은 연합사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연합사 아래에는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와 조선북한군 참모부가 속하며 이 둘은 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했다. 이 기구는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하기로 하였고 대내용 공문에서는 명칭을 군단 및 독립사단 본부까지로 제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지휘체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중공군 당시 지휘체계



13) 이종석,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한중국제학술세미나』(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20.

2) 작전개념과 기동계획

중조 연합군은 19병단을 서부축선에 견제부대로, 9병단과 3병단을 중동부 축선에 주력부대로 운용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중동부 축선의 주력운용에 있어서 9병단과 북한군 2·5군단을 주공부대로, 3병단과 북한군 3군단을 조공부대로 운용하여 한국군 부대를 섬멸한 후 유엔군을 측후방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5월 8일과 9일, 지원군 제9병단과 동부전선 북한군 전선지휘부는 제9병단 지휘부 주둔지에서 연합작전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일 17시 30분 공격 개시, 첫째로 20·27군과 북한군 제5·2군단은 겹겹이 쌓아 양면으로 현리지역의 한국군 7·9·3사단을 공격하고 12군과 27군은 응봉, 부봉지역의 한국군 제5사단을 격멸한다. 둘째로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군 제11사단과 수도사단을 친다¹⁴⁾라는 동부전선 작전계획을 검토 확정하였다. 지원군과 북한군이 확정된 현리지구 공격작전에서의 부대별 세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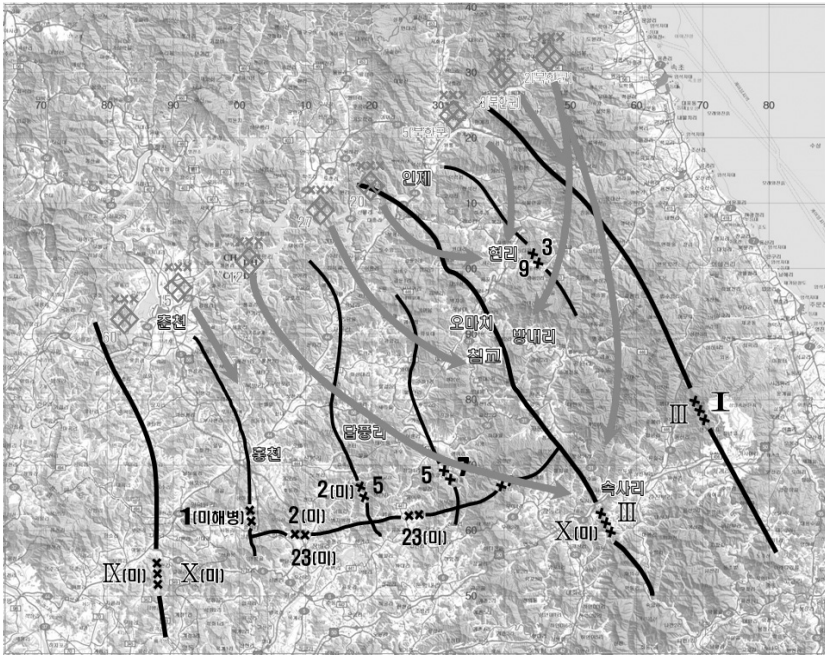
지원군 제9병단(제26군을 결하고 제12군을 포함)은 포병 제11, 제25, 제26, 제28연대를 배속하고 주요돌격집단(주공)이 된다.

제12군은 주력이 물노리(勿老里), 삼가리(三街里) 지역에서 동남 방향으로 돌격하여 답봉리(踏鳳里)지구의 한국군 제5사단을 섬멸하고, 증강된 1개 사단으로 장수원(長水院), 장평리(長坪里), 속사리(束沙里) 방향으로 전역우회하여 북한군 제2군단과 협격하고, 남쪽과 동남쪽을 향해 도주하는 적을 저지한다.

14) 中國人民支援軍 第 12軍 戰史, p. 14.

15) 중공군은 현리지역 전투에서 한국군 제3, 제5, 제7, 제9사단 등 4개 사단을 섬멸하는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냐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은 “각 부대가 제시간에 적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도주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냐의 여부”에 두었다. 즉 우회임무의 성공여부를 작전 목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05.

[그림 1] 중공군 작전계획



제27군은 논리(論理), 음양리(陰陽里) 간을 돌파한다. 먼저 일부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침교(砮橋), 이현(梨峴) 지역 내의 요지를 탈취 점령하고, 북한군 제2군단과 장진평(長津坪)에서 협격하여 남으로 도주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며, 군 주력은 상남리(上南里), 방내리(坊內里)지구의 한국군 제7사단을 공격 섬멸하고, 다른 일부는 제12군과 배합하여 한국군 제5사단을 공격 섬멸한다.

제20군은 부평리(富坪里), 달온리(達穩里) 간을 돌파한다. 먼저 일부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동남쪽을 향해 돌진하여 후평리(后評理), 미산리(美山里) 부근의 요지를 탈취 점령하고, 북한군 제5군단과 협동하여 현리지구의 한국군 제9, 제3사단을 섬멸하며, 다른 일부는 제27군과 배합하여 상남

리(上南里)지구의 한국군 제7사단을 공격 섬멸한다.

북한군 제5군단(제3군단 제1사단 포함)은 군량전(軍糧田), 귀둔리(貴屯里), 오작동(五柞洞)에서 한국군 제3사단 측익을 돌파하고, 일부 강력한 부대로 진동리(鎭東里: 현리 동남), 왕성곡(旺盛谷)으로 맹렬하게 돌진하여 지원군 제20군과 협격하고, 주력은 번이대(番伊岱), 대학동(大鶴洞)에서 현리 방향으로 돌격하여 제20군과 협동하여 현리지구의 적을 섬멸한다.

북한군 제2군단은 마산리(馬山里)와 그 서쪽의 한국군 수도사단과 한국군 제3사단 접합부를 돌파하고, 1개 사단으로 남쪽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여 속사리(束沙里)를 탈취 점령한 다음, 지원군 제12군과 협격하고, 적시에 하진부리지구의 적을 포위, 섬멸한다. 군단 주력은 계방산(桂坊山), 창촌리(蒼村里), 장진평(長津坪)의 제 요지를 탈취 점령하며, 지원군 제27군과 방내리, 이현에서 협격하고, 남으로 도주하는 적을 차단섬멸한다.

북한군 제3군단(제1사단)은 제2군단을 후속하여 신속하게 한계령, 망대암산(望代岩山), 유리봉(琉璃峰), 서림리(西林里)지구를 탈취 점령하고, 현리지구의 동으로 도주하는 적과 양양에서 서쪽으로 증원하는 적을 차단하며 측익 안전을 보장한다.

제15군은 1개 사단으로 평촌리(坪村里), 상걸리(上杰里)를 돌파하고, 계속 적중심을 향해 돌격하여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2사단 간의 연결을 차단하며, 미 해병 제1사단의 동쪽 증원을 저지한다. 군 주력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 한 길은 평촌리(坪村里), 사오랑치(沙五郎峙)를 연하여 대거리(大巨里)쪽으로, 다른 한 길은 물노리(勿老里), 갈곡(葛谷)에서 삼년동(三年洞)을 향해 여걸리(呂杰里), 판항리(板項里), 가산리(加山里)지구의 미 제2사단 제9연대와 제23연대를 가위 형태로 분할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미 제9연대를 섬멸한 후 구성포리(九成浦里)의 미 제2사단 본부를 협격한다. 결론적으로 미 제2사단 일부를 섬멸하는 것이다.¹⁶⁾

16)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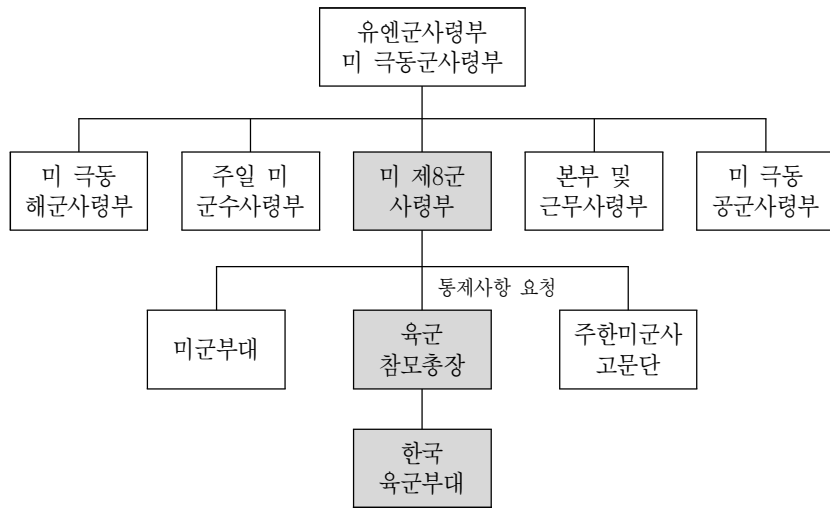
(2) 미 8군의 지휘체계와 방어개념

1) 지휘체계

미 제8군사령관은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하여 2가지 방법으로 작전을 통제하였다. 그 중 한 방법은 통상적인 경우로서 미 제8군사령관이 한국 육군참모총장에게 한국 육군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통제사항을 요청하여 육군 총참모장이 이를 한국군 지휘계통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한국군이 미군의 군단이나 사단에 배속 운용될 경우로서 이때는 미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전통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51년 7월 1일 한국의 육군부대가 미 제8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작전수행을 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지휘체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유엔군 지휘체계



2) 방어개념과 부대 배치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2사단으로 적의 예상 접근로인 춘천-홍천 축선을, 한국군 제5·제7사단은 소양강 남쪽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군단 방어정면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역에 26km의 광정면이었으며 도로망으로는 군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인제~현리~창촌~속사리에 이르는 단차로 뿐이었다.

한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11사단으로 설악산-대포리를 연하는 노네임선을 점령 방어하고 있었다. 한국군 3군단은 현리 북방에서 제9사단을 좌, 제3사단을 우로하여 전방방어 지역을 편성하고, 군단의 예비는 없었으며 단지 9사단 1개 연대를 작전통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군단의 좌는 미 10군단의 제7사단이, 우인접은 한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이 병행방어하고 있었다. 군단의 우익인 제3사단은 지휘소를 현리에 두고 제23연대를 우, 제18연대를 좌측에 배치하였으며, 제23연대를 예비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군단의 좌익인 제9사단은 지휘소를 용포(현리 남쪽 5km)에 두었으며 제30연대를 우, 제28연대를 좌측에 배치하고, 예비대로 제29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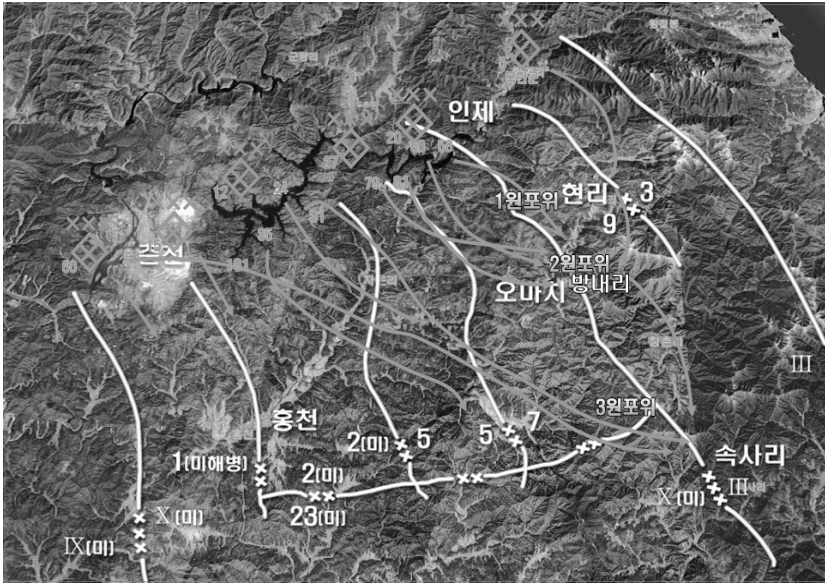
(3) 작전경과

1) 5월 16~17일

16:30~17:30까지 중공군 20군과 27군은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을 7사단 전방과 지휘소 및 포병진지에 집중하였다.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준비 사격으로 인하여 상·하급부대는 물론 좌·우 인접부대간의 유선시설이 파괴되어 일시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었고, 제16포병대대는 19:00에 어론리로 철수하여 화력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¹⁸⁾

17) 육군대학, 앞의 책, p. 169.

[그림 2] 작전경과 상황도



제7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제8연대와 제5연대를 전방, 제3연대를 예비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13일부터 방어로 전환하여 소양강변의 전초선에 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고 적의 예상 도하지역에는 탄막을 설치하는 등 주저항선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¹⁹⁾

7사단 전방으로 중공군 2개 군 6개 사단의 집중공격은 소양강이라는 방어 이점을 활용한다 해도 6 : 1의 상대적 전투력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격준비사격이 종료되자 20군은 17시 40분에 소양강을 강습도하²⁰⁾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1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23권(계룡: 인쇄창, 1987), p. 293.

1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서울: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p. 555.

20) 178연대 2대대 돌격중대는 17시 40분에 강행도하를 시작하여 9분만에 200m나 되는 소양강을 도하하였다. 中國人民支援軍 第 20軍 戰史, p. 37.

제20군은 24시에 음양리, 관대리 일대 7사단 5연대전방²¹⁾으로 2개 사단을 집중하여 소양강 도하를 완료하고 5연대 중심을 향해 공격을 계속 하였다.²²⁾ 지원군 제60사단 선두 178연대는 타격과 전진을 병행하면서 신속하게 중심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며 도로를 따라 아군을 공격한 결과, 17일 7시에는 중심 25km를 돌입하고 후평리(后坪里), 오마치(五馬峙)를 탈취 점령하였다.

사단의 주력은 후속하여 17일 제 시간에 후평리, 미산리(美山里), 왕성곡(旺盛谷)지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현리지구의 한국군 제3, 9사단의 남쪽 도주로를 차단하고 전역 승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²³⁾

20군의 좌측사단인 제58사단은 173연대를 선두로 감전리일대 소양강을 강습도하 후 17일 10시에 와야동까지 전진하였으며 22시에 용포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고 사단 주력은 18일 1시에 합류하였다.²⁴⁾ 아울러 북한군 제5군단 제6사단과 협격하여 현리지구의 3군단을 합동 포위하는 형태를 만들었다.²⁵⁾ 제59사단은 최초 20군의 2계대로써 60사단을 후속하여 소양강을 강습도하후 17일 야간에 사단 전부가 와야동 일선까지 진입하였다.

27군은 23시 구만리, 창막동(蒼幕洞)일대 한국군 7사단 8연대 전방으로 2개 사단을 집중하여 돌파하였다. 27군 81사단은 우회부대로서 8연대 3대대 진지를 돌파하고 중심으로 공격을 하였다. 선두대대인 242연대 제2대대

2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권에서는 7사단 8연대 지역으로 군의 주력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연대와 8연대 전투지경선을 집중하였다.

22) 중공군 자료에 의하면 중공군이 최초진지 돌파시 준비 미흡, 돌파지점 오판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격시 돌파지점 변경으로 준비가 미흡하고 상황이 불분명하여 화력지원 면에서 임무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부대(17시 55분 제58사단 제173연대 제4중대)는 돌파지점이 갑자기 남으로 이동해서 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고, 상황이 불분명해서 우리 화력은 남안의 적을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 3번의 연속 돌격은 성공하지 못했다.” 中國人民支援軍 第 20軍 戰史, p. 36.

23)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13.

24) 中國人民支援軍 第 20軍 戰史, p. 38.

25)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13.

는 18차례의 대소 전투를 거쳐 9시간 동안에 60여 km를 전진하였다. 17일 5시에는 적 중심 28km를 돌입한 후 이어서 암달동(岩達洞) 도로 양측 고지와 침교(砧橋), 방내리(坊內里)의 여러 요지를 탈취 점령하며 현리의 3군단 퇴로를 차단하였다. 지원군 제242연대 주력은 제2대대를 바짝 후속하고 17일 12시에 침교, 암달동지구에 도달하였다.²⁶⁾

지원군 제27군의 다른 돌격부대인 제79사단은 소양강을 강습 도하하여 먼저 옥산동(玉山洞)을 공격 점령하고 이어 바로 남쪽을 향해 공격 전진하여 갑둔리(甲屯里), 직동(直洞), 소치리(所峙里), 금부리(金富里) 일대로 진출하였다. 아울러 소치리에서는 8연대 일부를 공격 궤멸시키고 18일 00시에 직동지구에 도착하였다. 27군의 예비인 제80사단도 논리 부근까지 진출하여 제79사단과 협동할 준비를 하였다.

지원군 27군은 7사단 8연대를 돌파후 중심 20여 km를 돌입하여 현리 서남쪽에 있는 3군단 퇴로를 차단하고 현리에 있는 3군단에 대하여 합동 포위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아울러 제20군 60사단과 함께 상남리(上南里)지구에서 퇴로를 차단한 후 한국군 7사단과 3군단을 포위공격하였다.²⁷⁾

한국군 제7사단은 전방 연대의 분산으로 지휘통제가 와해된 상황에서 예비였던 제3연대마저 포위되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으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 어렵게 적의 포위망을 벗어나 15:00에 상남리로 철수하였다.²⁸⁾ 이후 사단은 제3군단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2대대로 오마치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접적을 단절하고 철수하였다. 사단은 제3연대와 오후에 방내리에서 재편성된 제5연대의 일부 부대로 울전리 일대에 저지진지를 편

26) 중공군 자료에 의하면 지원군 242연대 제2대대가 막 진지에 진입하였을 때 남으로 철수하는 한국군 제9사단 30연대가 이미 도달해 있었는데 지원군 대대가 적을 기습 공격하고 적 차량부대를 타격 교란하여 현리로의 집결을 강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오마치 돌파를 위하여 대기중에 영문도 없이 방대산으로 철수하였던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27)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에 보면 전투결과 한국군 5개 대대(3,000여명)를 전멸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14.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113.

성,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8일 새벽에 다시 풍암리로 이동하였다.²⁹⁾

7사단 좌측에서 방어중이던 한국군 5사단은 중공군의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7사단이 돌파되면서 7사단과 함께 17일에는 No-Name 선상으로 18일에는 풍암리 일대로 철수를 하였다.

한편 한국군 7사단 우측을 방어하고 있던 9사단은 제3군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제28연대와 제30연대를 전방, 제29연대를 예비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방어를 실시하였다. 5월 16일 좌인접인 7사단 5연대의 정면이 돌파됨으로써 좌측방이 노출되어 사단은 주저항선을 유지하면서도 후방을 차단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5월 17일 7사단이 돌파됨에 따라 사단장은 보급차량과 사단 공병대대의 일부 차량이 먼저 상남리의 오마치 고개를 넘어 철수하도록 하였는데 나머지 주력 차량은 이용문 대령의 선두 지휘아래 오마치고개에 이르렀으나 이미 중공군에 의하여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 전방연대에 대하여 정오³⁰⁾에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예하 연대 병력은 철수명령에 의거 분산된 채 지휘소가 있는 용포로 계속 남하하여 오전중에는 주력이 거의 집결하였다.³¹⁾

또한 중공군 12군은 5월 15일 밤 소양강을 건너 미 2사단 38연대 우측과

29)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558.

30) 기존전사에는 철수시기가 17일 04:00로 기록되어 있으나 훈장수여식이 17일 오전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04:00는 맞지 않다. 당시 7사단이 돌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9사단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당시 상황전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4:00에 철수만 계획대로 실시되었더라면 오마치일대 차단과 용포일대에서 중공군에 의한 포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당시 30연대장 증언).

31) 9사단 「부대사」(9사단, 1982), pp. 117-118. 9사단 전방에 투입된 적에 대하여 9사단 부대사에서는 중공군과 북한군이 혼합되어 일부가 정면에서 견제하는 동안 주력이 후방으로 침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한국전쟁(중)에서는 7사단의 붕괴여파가 확산되어 17일 02:00경 중공군의 산발적인 포격이 개시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7사단을 돌파한 중공군의 일부가 좌측 후방으로 침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중공군 자료를 확인한 결과 9사단 정면의 적은 북한군이었으며 9사단 후방으로 진입한 중공군은 20군 이하 58사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F ZEBRA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중공군은 정면에 미군과 한국군을 잇는 부분으로서 한국군 5사단이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5월 16일 17시 포병사격³²⁾을 시작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외곽포위 임무를 부여받은 12군이 성공적인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정보판단 착오에 있었다.

12군 34사단은 군의 2제대 사단으로서 1제대를 후속하다가 서에서 동으로 한국군 5사단을 공격하였고 31사단은 중앙에서 TF ZEBRA를 공격하였다. 35사단은 38연대와와 전투지경선인 가리산 1051고지로 공격을 실시하였다.

당시 미 2사단은 대룡산(899고지)-가리산(1051고지)-매봉(800고지)을 연하는 전선의 좌전방에 제9연대, 중앙에 제38연대(배속: 한국 유격중대, 네덜란드 대대), 우측에 TF ZEBRA를 배치하여 방어 중에 있었다.³³⁾ 12군 우회임무를 부여받은 31사단은 TF ZEBRA 우측을 돌파하여 24시 전 자은리 북쪽 삼거리 지역에 진입하였다.³⁴⁾ 34사단은 2제대로써 31사단을 후속하였다.

중공군 12군 31사단은 10시에 자은리 북쪽 410고지를 장악하였고 오후에는 장수원 북쪽과 서쪽지역까지 진출하였다. 34사단은 자은리 동남지역에서 돌파구를 확장하였다.³⁵⁾ 가리산 일대를 공격하였던 중공군 35사단은 60군 181사단 지원하에 평내계곡으로 돌파구를 확장하였다. 35사단 선두부대

32) 중공군 포병은 준비 시간이 촉박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포병 정찰대와 박격포 부대와와의 협력이 좋지 못하였다. 또한 포병 정찰소에서 중요 포격 지점을 지정해주지 못해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발포하였고 지형의 제한과 적 전투기의 위협 때문에 포 진지를 비교적 먼 곳에 배치하여 거리가 8,000미터 이상 이격됨으로써 효율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 中國人民支援軍 第 12軍 戰史, p. 13.

3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566.

34) 아군상황과 지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공격을 실시하지 못하고 2시간을 허비하였다. 中國人民支援軍 第 12軍 戰史, p. 13.

35) 중공군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화력과 대형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선봉을 점령한 사단은 급격히 전투력이 약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 24번 도로를 차단하게 되었다. 미 2사단 제23연대와 TF ZEBRA는 완전히 고립되어 3군단 퇴로차단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다.

2) 5월 18~22일

중공군 제20군은 19일까지 전투한 결과 한국군 제3·9사단 대부분이 현리와 그 이남지구에서 섬멸당하고 지원군과 북한군은 한국군 양 사단의 전중장비를 노획하였다. 이후 지원군과 북한군 부대는 바로 현지에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³⁶⁾ 제27군은 원둔동, 창촌리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3·9사단을 추격하였으며 1개 연대는 속사리 지역까지 진출하였다.³⁷⁾

중공군 12군 34사단과 35사단은 18일 24시를 기하여 답풍리 일대를 점령하였고, 31사단은 풍암리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특히, 중공군 12군 31사단 선두연대는 20일 여명을 기하여 속사리에 진출하였고 181사단은 21일 속사리에 도착하여 31사단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공군 27군은 20일 눌언리(訥言里), 판궁대(判宮堡), 창촌리 지역을 점령하여 적 일부를 섬멸하고, 1개 연대는 속사리까지 진출하였다. 북한군 5군단은 광원리, 청도리지구를 점령하고 일부는 하진부리 북쪽에서 공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미 2사단은 9연대를 답풍리 일대로 38연대 3대대를 풍암리 일대로 전환하여 중공군을 저지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공격간에 미 10군단의 포병 및 항공지원에 의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고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5월 19일을 전후하여 중공군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미 제3사단은 제7연대와 제65연대가 장평리에 집결하자 돌파구 침단인 속사리 부근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할 것을 계획하였다.

미 3사단은 21일 운두령³⁸⁾을 목표로 장평리-백적산에서 2개 연대로 병진

36)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517.

37) 中國人民支援軍 第 27軍 戰史, p. 41.

38) 운두령은 속사리 서북방 10km에 위치한 구절양장(九折羊腸)의 고개로서 서쪽으로 회령봉(1326고지), 동쪽으로는 계방산(1577고지)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리-속사리로 이어지는

공격을 하였다. 공격제대들은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여 순조롭게 진출하고 있을 무렵 불행하게도 속사리-하진부리를 점령하고 우측방을 엄호하던 제3군단의 방어선이 적의 기습 공격에 돌파되었다. 사단은 공격을 일시 중지하고 접적이 경미한 좌전방 제65연대를 속사리에 재배치하여 측방을 강화한 후 22일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7연대가 운두령에 접근할수록 적의 저항이 완강하여 연대의 공격이 일시 돈좌되기도 하였으나 강력한 포병화력을 집중하여 18:00경 마침내 운두령을 수중에 넣었다.³⁹⁾

공세 초기 제3군단이 후방의 오마치가 피탈되면서 무기력하게 철수하였듯이 이번에는 적이 그 전철을 밟게 되었다. 미 제3사단의 운두령 전투는 적의 5차 전역 2단계 작전 저지는 물론 아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중공군과 미 8군의 작전지도 분석

(1) 중공군 작전지도 분석 및 평가

1) 작전지도 분석

팽덕회는 4월 28일 5차 전역 1단계 작전 후 적의 우수한 화력이 서울방향에 있는 중공군을 공격할 것이며 중공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하고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한국 군대를 포위섬멸한다⁴⁰⁾는 작전을

도로가 이 고개를 넘고 있다. 따라서 운두령의 점령은 인제-현리-속사리 축선에 형성된 적의 돌파구 침단의 차단을 의미함과 동시에 강릉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 고개 남쪽 경강국도(京江國道)로 진출한 적의 철수세가 봉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9)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576.

40) 金達萊, 앞의 책, p. 26.

구상하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4월 28일 1단계 작전종료 후 18일만에 서부전선에 투입된 3·9병단을 중동부전선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한국군 배치지역을 주공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공군 3개 군과 북한군 3개 군단을 투입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음으로써 작전에 실패하게 된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중공군의 작전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전목적 달성 여부를 우회부대의 퇴로차단에 두었다.

현리지구에서 한국군 제3·5·7·9사단 등 4개 사단을 섬멸하는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기본적인 관건은 “각 부대가 제시간에 적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도주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결정된다.”⁴¹⁾

이를 위하여 20군은 60사단을, 27군은 81사단을, 12군은 31사단을 각각 운용하였다. 팽덕회는 각 군별 1개 사단씩을 우회작전에 운용함에 있어서 성공 보장을 위해 하루저녁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는 계획된 지점에 도착하는데 주안을 두고 작전을 실시하였다.⁴²⁾

결과적으로 12군 31사단은 미 2사단에 의하여 저지됨으로써 계획된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20군 60사단과 27군 81사단은 익일 오전까지 계획된 지점인 오마치와 상남리 일대에 도착하여 퇴로를 차단하였다. 특히 20군 60사단 예하 178연대 2대대의 경우 오마치 우회작전 실시간 4·6중대가 길을 잘못 들었지만 12시간 동안 약 30km를 전진하며 한국군 제3·9사단의 침교방향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둘째, 섬멸전을 추구하였다.

모택동의 인민전쟁전략은 유격전 전략, 지구전 전략, 섬멸전 전략이라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섬멸전 전략은 중공군의 참전 이후 모든 작

41)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앞의 책, p. 505.

42) 그렇지 못할 경우 익일 주간에 기동장비를 이용하고, 부대배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습적인 우회작전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경현·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경희정보인쇄, 2004), p. 66.

전에 투영되었다. 모택동은 “... 적을 살상한다는 것은 적을 섬멸하는 수단으로서 취해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 섬멸전은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곧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경우 열손가락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한 개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게 하는 것이 나으며, 적에 대해서도 적 10개 사단을 격파하기 보다는 그 한 개의 사단을 섬멸하는 것이 낫다. 어느 전투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포위하고 한명도 놓치지 않는 완전 섬멸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섬멸전 사상은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포위섬멸의 대상을 한국군에 두었다.⁴³⁾ 특히,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에 중공군은 한국군 4개 사단(3·5·7·9사단)을 섬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3중 포위를 통한 완벽한 작전을 이루려는 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작전적 전술적 속전속결을 추구하였다.

중공군의 5차 전역 2단계 작전은 1단계 종료 후 18일만에 실시하였다.⁴⁴⁾ 6개 군 18만여 명이라는 대병력의 이동은 완벽한 작전적 기습작전의 성공이었다.

4월 28일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한국 군대를 포위섬멸하도록 한다”라는 명령 아래 중공군은 먼저 서울 방향과 한강 하류에서 양동작전을 펼쳐 끊임없이 적을 기습공격하였고 한강의 남쪽을 건너 우회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북한군의 일부는 서울 서쪽 부근에서 한강 도하준비를 하였다. 다른 두 개의 병단은 은밀히 동쪽으로 이동하여 작전적 기습을 달성하였다.⁴⁵⁾

서부전선에 투입되었던 제3·9병단이 중동부전선으로의 이동은 5월 초 미 8군 정보망에 일부 노출됐지만 미군이 계획하였던 Detonate작전⁴⁶⁾의

43) 1차 전역시에는 한국군 1, 6, 8사단을 2차 전역시에는 2군단(6, 7, 8사단)을 4차 전역시에는 8, 5, 7사단을 5차 전역 1단계 작전시에는 한국군 6사단이 각각 섬멸 대상이었다.

44) 인천상륙작전의 경우 7월 10일 작전구상후 9월 15일에 실시되었다. 상륙부대 규모는 지상군 75,000명, 함선은 261척이었다.

45) 金達萊, “彭德懷在朝鮮戰場”, 「血沃」(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p. 26.

<표 4> 중공군 5차 전역 준비과정

| 구 분 | 중공군 지휘부 | 공세부대(제3·9병단) |
|----------|---------------------|----------------------------|
| 4. 22~28 | 5차 전역 1단계 작전(4월 공세) | 중·서부 |
| 4. 26 | 1단계 작전 실패보고 | 휴식 및 정비 재보급 및 공세준비(12일) |
| 4. 28 | 2단계 작전 결정 | |
| 5. 6 | 준비명령 하달 | |
| 5. 8 | 작전회의 | 중·동부로 이동시작 |
| 5. 9 | 정식명령하달 | |
| 5. 13~15 | | 작전지역 도착 및 전개 |
| 5. 16 | 2단계 작전 시작 | 공세개시 |

출처: 최용호·최용성, 「6·25전쟁의 이해」(서울: 양서각, 2008), p. 387.

실행을 일부 중지시킨 것 이외에는 미 8군의 적절한 작전구상, 병력재배치 등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함으로써 중공군으로 하여금 완벽한 기습작전을 달성하게 하였다. 이는 초기작전시 현리지역 대 돌파구 형성이 라는 작전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넷째, 주 돌파지점은 한국군 배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팽덕회는 동부전선의 국군방어선을 돌파한 뒤 서쪽으로 향하게 해 미군의 측면과 배후를 노리는 작전을 구상하였다.⁴⁷⁾ 팽덕회가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동부지역을 주공으로 판단한 가장 큰 이유가 당시 동부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한국군 5·7·9·3사단의 섬멸을 위하여 주 돌파지역을 5사단과 7사단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사단 지

46) 이 계획은 적군의 통신로와 보급로를 공격함으로써 적군의 공격준비에 훼방을 놓기 위해 고안된 작전으로서 “Kansas선”으로의 총 공세와 중간목표선인 38선 남쪽에 붙어있는 “Topeka선”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다.

47)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역(서울: 고려원, 1993), p. 230.

역은 미 2사단이 점령하고 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2개 사단지역으로 각각 2개 군 6개 사단을 집중시켰다.

2) 작전지도 평가

팽덕회는 상대적으로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전투방식을 적용한 속전속결 및 섬멸전을 추구하였다. 2개 병단이라는 대부대의 기습작전을 통하여 중동부전선에서 초기에 현리지역 대돌파구를 형성함으로써 작전목적의 일부를 달성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첫째, 전투준비가 지나치게 짧았다.

중공군은 5차 전역 1단계 작전 후 기습작전을 달성하여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작전승리로 이어지게 하지는 못하였다. 중공군은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투준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차 전역은 비록 우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불만스러운 점도 많았다. 첫째, 준비가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이다. 이번 전역은 상대의 상륙계획을 파괴해야 한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마음만 급했다. 아군의 전략예비대는 집결하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한 뒤 전투에 투입됐다. 특히 새로 참전한 부대들은 조선에 도착한지 얼마 안돼 상대의 특징이나 지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다 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인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전술준비가 부족하고 식량 및 탄약준비도 넉넉하지 못해 작전수행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었다.

미 2사단 방어지역을 한국군 5사단 배치지역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러한 전투준비 소홀이었다. 또한 작전 실시간 12군 작전시 자은리 일대에서 2시간을 지체, 60사단 178연대 2대대 4·6중대의 방향상실, 27군의 소양강 도하시 도하지점 잘못 판단에 따른 많은 피해 발생 등 전투준비 소홀로 인하여 전투력 발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3원포위를 위한 퇴로차단 지점을 잘못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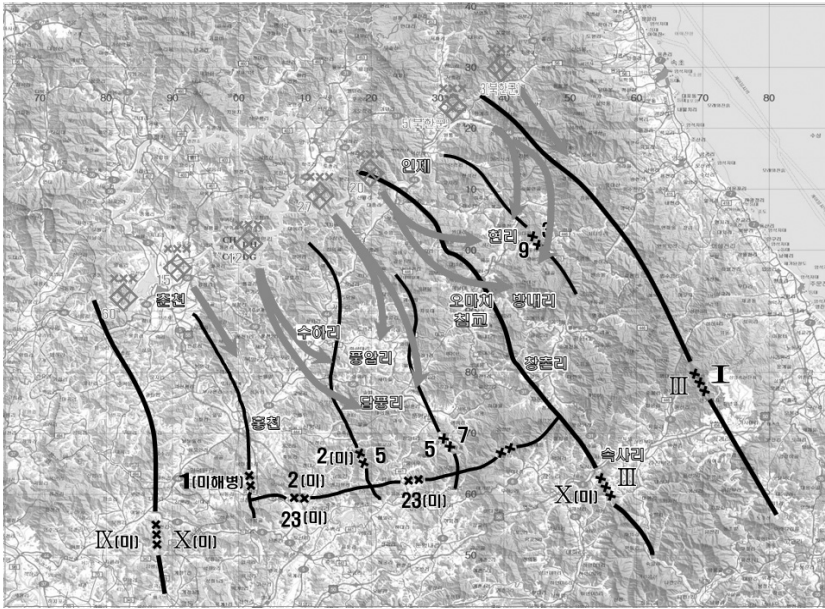
중공군은 한국군 4개 사단(3·5·7·9사단) 섬멸을 위하여 3원포위를 계획하고 작전을 실시하였다. 5차 전역 2단계 작전의 성공여부를 계획된 시간에 우회부대들의 퇴로차단 여부에 두었던 만큼 퇴로차단은 대단히 중요한 작전이었다. 결과적으로 1원포위만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는 계획에서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다. 중공군 우회전술의 기본 개념은 “적 배치의 간격을 이용하여 돌파 혹은 침투하여 적을 분할시켜 퇴로를 차단한 후 정면공격부대와 협공 및 배합전으로 적 부대를 격멸한다”는 것이었다.⁴⁸⁾ 그러나 2단계 작전시 작전목적이 한국군 5·7·9·3사단의 섬멸에 있었는데 1원포위 퇴로차단지점(상남리)만 3·7·9사단의 퇴로였고 2·3원포위 퇴로차단지점(방내리, 속사리)은 5·7사단 퇴로와 무관한 3·9사단만의 퇴로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중공군의 작전계획은 한국군 2개 사단(3·9사단)은 섬멸할 수 있었으나 5·7사단의 섬멸은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었다.⁴⁹⁾ 이는 결국 결과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중공군의 3원포위는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경우 아래 상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원포위보다는 2원포위를 실시하되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당시 중공군의 전투근무지원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군 4개 사단의 섬멸이라는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즉 현리, 오마치 2원포위를 통하여 3·9사단을 섬멸하고 수하리, 풍암리 2원포위를 통하여 7·5사단을 섬멸한다는 계획이 4개 사단 섬멸이라는 주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더욱 효과적인 작전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48) 김경현·김순수 역, 한국전쟁시 중공군 전술 분석 및 평가(서울: 경희정보인쇄, 2004), p. 79.

49) 중공군이 미 2사단 지역에 배치된 부대를 5사단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위치상으로 더욱 맞지 않다.

[그림 3] 2원포위 2개 지역 상황도



셋째, 심각한 군수문제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중공군의 군수문제는 4차 전역 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1년 당시 중앙군사위와 중화인민혁명 군사위의 부주석이었던 “네룽전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중공군은 당시 군수문제에 있어서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됨에 따라 우리의 보급선은 그만큼 길어졌고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4차 전역기간이 되자 우리의 탄약과 식량은 바닥을 보이게 되었다. 또 포탄이 부족하여 보병부대는 화력을 이용할 수 없었고 탄약이 부족하여 수류탄으로 공격하기도 했으나 전투효율은 크게 떨어졌다. 5차 전역에서 현리지구의 적 방어선을 뚫자 우리는 탄약과 식량의 추가공급을 위해 3일간 공격을 중단해야 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적을 포위하고도 충분한

물자가 없어 공격하지 못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일부부대는 탄약과 식량부족으로 철수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후 적은 지원군의 작전유형을 간파하여 우리의 전방부대가 스스로 조달하는 식량과 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보통 휴대식량과 탄약은 1주를 넘기지 못했다. 실제로 미군들은 우리의 탄약공급을 1주짜리라고 불렀다.⁵⁰⁾

중공군의 작전한계점을 결정지었던 군수문제는 중공군의 한계를 절실히 인식시키는 요인이었으며 작전실패와 대량피해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였다. 결국 중앙군사위는 5월 19일 ‘인민지원군 군수강화결의문’을 발행하여 지원군 후군부(후방지원군무부) 설립⁵¹⁾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지원군의 군수사정은 점차 개선되었다.

넷째, 작전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중공군은 주 공격방향에 상대적 전투력 우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군 7사단 전방과 미 2사단 전방에 각각 2개 군을 투입하였다. 미 2사단 지역을 5사단이 배치된 지역으로 잘못 판단한 이후 공격이 저지됨으로써 최초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군 181사단을 추가로 미 2사단 지역에 투입한 것 이외에는 공격방향과 체대별 임무를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함으로써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5·7·9·3사단 섬멸이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81사단을 미 2사단 지역으로 투입하기 보다는 이미 철수를 완료한 한국군 5사단 지역으로 투입하여 5사단과 7사단의 퇴로 차단 또는 부대 섬멸에 작전목적을 두고 운용했어야 했지만 방어강도가 강한 미 2사단지역으로의 투입에 집착한 결과 작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3병단 예비인 39군을 운용하지 않고 60군 181사단을 투입함으로써 미 해병 1사단 정면의 견제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미 해병 1사단 견제약

50) 공군본부, 『중공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계룡: 공군교재창, 2004), p. 71.

51) 상계서, p. 72.

화는 제5해병연대를 한계지역에 전용 가능하게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 2사단의 방어력을 증강시키게 했다. 특히 예비인 39군은 작전종료시까지 운용하지 않음으로써 전투력 집중과 융통성 있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미 8군 작전지도 분석 및 평가

1) 작전지도 분석

미 8군은 중공군이 중동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함으로써 작전초기에는 돌파를 당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적시적인 상황판단과 중공군의 취약점을 이용한 실시간 부대운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한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미 8군의 작전지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작전실시간 적시적인 상황판단과 조치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작전초기에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였다. “Detonate작전”의 목적을 조금이나마 실현하기 위해 미 8군은 5월 5일 한국군에게 인제와 용대리에 있는 적군의 통신소들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목표지점의 위협시설물들이 파괴되는 대로, 한국군 3군단과 1군단을 미주리선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 6개 사단은 5월 7일 미주리선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5·7사단은 별 저항 없이 소양강 이남까지 진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9사단과 3사단은 북한군을 격퇴하여 매봉·한석산과 가리산 일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월 13일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판단에 따라 소양강 차안을 연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작전초기에 이러한 적극적인 공세작전은 북한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9사단과 3사단은 5차 전역 2단계 초기전투에서 적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소양강이라는 천연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점령함으로써 방어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미 8군의 이러한 작전초기 미주리선으로의 진격에 대한 미 8군의 작전지도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되어진 문헌은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한국군이 소양강 이남으로 진격하여 방어한 것이 No-Name선상에서 그대로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했을 경우보다 조기에 돌파되었으며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현리지역 대 돌파구 형성시 작전의 기민성을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미 8군은 현리지역 대 돌파구 형성시 이에 대한 조치로써 크게 전투지경선 조정과 전투력 전환이라는 작전의 기민성을 확보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5월 17일 미 2사단 우측 TF ZEBRA와 38연대 우측이 돌파되자 밴플리트(Vanfleet) 장군은 첫째, 미 제2사단의 지역을 보강할 수 있도록 미 제9군단-제10군단 전투지경선을 동쪽으로 4마일 가량 이동시켰다.⁵²⁾

둘째, 군 예비인 미 3사단을 동부로 전환⁵³⁾시키고, 8인치 및 155밀리 포병 각각 1개 포대씩을 미 10군단으로 추가 지원토록 하였다.⁵⁴⁾

셋째, 한국군 제3군단 및 제1군단을 홍천~창춘리를 연하는 와코선으로 북귀시켜 새로운 전선을 형성토록 함으로써 중공군의 전투근무지원의 취약점을 역이용하면서 방어력을 증강시켰다.⁵⁵⁾

넷째, 한국군 제8사단으로 하여금 미 제10군단 지역을 보강할 것을 지시

52) 미 제9군단 우측에 배치된 미 제7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 지역 일부를 방어하게 되었고 해병 병력은 미 제9연대와 교대하였다.

53) 미 3사단 제15연대전투단의 선두대대는 서울 남동쪽 집결지에서 출발하여 70마일을 이동한 결과 17일 10:00경 횡성에 도착하였다.

54) 미 제9군단 소속의 155mm포를 보유한 포대와 8인치 곡사포를 동쪽으로 투입하였다. 알몬드 장군은 중(中)포 및 중(重)포를 보유한 총 5개 대대와 4개 포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p. 497.

55) 육군본부, 앞의 책, p. 497.

하였다.⁵⁶⁾

특히, 5월 18일 현리지역과 미 10군단 우측에 대한 적의 압력이 계속되어 돌파구가 확장되자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Van Fleet) 장군은 이날 12:00부로 당초 주저항선인 no name선을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778(병커고지)를 좌축심으로 하여, 한계-△1009선으로 수정하고, 이 선을 군의 최종 방어지대로 결정하였다. 또한 8군 예비인 미 제3사단을 이천-경안리부근에서, 미 제9군단 예비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양평부근에서, 그리고 한국군 제8사단을 전주지역에서 각각 급거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기동케 하여 10군단을 지원토록 하였다.⁵⁷⁾ 공세초기 제3군단이 후방의 오마치가 피탈되면서 무력하게 철수하였듯이 이번에는 적이 그 전철을 밟게 되었다. 미 제3사단의 운두령 전투는 적의 5월 공세 저지는 물론 아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⁸⁾

셋째, 중공군의 작전한계점을 이용하여 신속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미 8군은 중공군 개입초부터 중공군의 작전한계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즉 중공군의 공세 지속능력이 7~8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한 후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였다.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현리지역 돌파구가 형성되었지만 중공군의

56) 당시 한국군 제8사단은 전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의한 게릴라 소탕 후에는 제천을 향해 복진할 예정이었다.

5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19.

58) 당시 미 3사단 운용에 대한 중공군 자료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제5차 전역 제2단계의 작전 중 적들은 동부전선 상에 취약점을 공격하여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였다. 미군 총사령관은 신속히 서울에 있는 미 제3사단을 풍암리로 증원하였고 홍천 지역의 미 제2사단은 동쪽의 자은리 부근으로, 미 육전대 제1사단을 양덕원리 지역에서 홍천, 구성포리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한국군 제8사단은 제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적의 동정에 변화가 있었으나 당시 조정이 신속하여 행동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리지역 전투의 가장 큰 전환점은 미 3사단의 운용 등에 있었다. 中國人民支援軍 第 27軍 戰史, pp. 41-42.

공격이 둔화되자 중공군이 철원-서울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 최소 일주일의 걸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 8군이 최소 2개의 미군 사단들을 이용하여 의정부 축선을 따라 제IX군단과 제X군단들을 공격하고 있는 적을 분산시키고 철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 작전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며 밴플리트(Vanfleet) 장군에게 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5월 19일에 전방을 정찰한 후,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밴플리트(Vanfleet) 장군에게 의정부-철원 경계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적은 지나치게 전진해 있었으며 리지웨이 장군은 이러한 면을 노리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적이 중동부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는 와중이었지만 밴플리트(Vanfleet) 장군은 공격을 명하였다. 갑작스러운 이동 방향의 변경은 적을 놀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아군은 많은 영토뿐만 아니라 어떤 날에는 미 8군 측에서 하루에 21,000명의 적의 목숨을 빼앗고 14,000명 정도를 부상 입혔다고 주장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

전 전선에 걸쳐, 유엔군은 비교적 소극적인 중공군의 저항을 뿌리치며 계속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5월이 끝날 무렵에는 밴플리트(Vanfleet) 장군의 병사들은 KANSAS선 근처까지 진격해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 8군 역사상 어느 부대보다 이때의 부대가 적을 많이 부상시키고 죽였다는 사실이다.

중공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중국과 북한군 부대들이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자,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당연히 5월 30일 열린 합동참모회의에서 적군이 한국에서 커다란 패배를 맛보았다고 보고하였다.⁵⁹⁾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중공군의 결정적인 피해가 미 8군의

59) James F. Schnebel, *Policy and Direction* (W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389.

반격작전에 있었음을 중공군 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적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부족하여 아군은 교란성 습격만을 대비하였으며 힘을 한 곳에 집중하여 구만리의 적을 섬멸하려는 준비만 하였다. 그러나 적이 정면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적들은 아군이 탄약이 빈약하고 식량이 모자르다는 것과 이동을 하여 피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천호 이남과 소양강 양쪽 강안에서 협공을 하였다. 제2단계 전투가 끝나고 아군은 전투후 충분한 정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사상자와 물자 및 보급품이 신속히 운송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적과 전쟁을 하였을 때 많은 물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⁶⁰⁾

2) 작전지도 평가

당시 미 8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Vanfleet) 장군은 1951년 4월 14일 리지웨이(Ridgeway) 장군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또한 리지웨이 장군이 지휘권 인계 후 연합사령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 8군의 작전지도는 리지웨이 장군의 작전지도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미 8군은 중공군 5차 전역 2단계 작전시 미 3사단의 작전적 기동과 “밴플리트(Vanfleet)식 사격”이라고 명명될 정도의 집중적이고 막대한 화력운용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중공군 참전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가함으로써 작전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첫째, 3군단 퇴로차단시 적시적인 상황판단 및 조치가 미흡했다.

한국군 7사단 전방으로 중공군 2개 군이 집중됨으로써 7사단의 돌파상황에서 미 제10군단은 5사단과 7사단을 17일 01:00에 더 나은 수비선을 고수하기 위해 “No Name”선으로 철수시켰다. 당시 한국군 3군단은 좌측 5사단

과 7사단이 철수한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7일 오전까지 철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군 3군단의 좌측면은 3,000미터의 빈틈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 2사단의 우측과 한국군 3군단의 좌측은 완전히 노출되었다.⁶¹⁾ 이와 같이 5·7사단의 철수로 인하여 중공군 2개 사단에 의한 3군단의 퇴로가 차단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미 8군의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당시 10군단에 의한 5·7사단의 철수는 미 8군 차원에서 철수 시기 및 지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즉, 5·7사단의 철수 지점을 최소한 3군단의 주보급로 전방에서 1차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둘째, 전투력 전환, 전투지경선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군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은 상남리 일대 중공군 2개 사단과 후속하는 20군과 27군 주력이었다. 최초 퇴로가 차단될 당시 17일 오전 중에 5·7사단의 철수보다는 3군단 퇴로 확보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인식과 조치가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미 2사단이 돌파되었을 경우 미 9군단의 전투지경선 조정 및 화력운용 전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비교했을 경우 매우 소극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미 제10군단장의 경우 10군단 전투력 운용에서만 판단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았을 때 한국군 3군단에 관련된 작전적·전술적 조치는 미 8군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졌어야만 마땅한 것이다.

셋째, 정보판단에 실패하여 작전적 기습을 허용하였다.

미 8군 사령관은 적의 배치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차기 적의 공세는 5차 전역 1단계 작전처럼 서부 또는 중부지역의 의정부-서울, 북한강 통로, 그리고 춘천-홍천 축선이 주요 공격축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지역에 전투력이 강한 미군 사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를 이동시켜 전력을 강화하였다. 유엔군의 주력부대가 서부와 중앙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국군이 담당하

60) 中國人民支援軍 第 27軍 戰史, p. 42.

61) US Eighth Army Command Report.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옹건 되었다. 그러나 제8군사령관은 흥천 동쪽의 동부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병력이 미약하고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면 국군 6개 사단(제5, 7, 9, 3, 수도, 11사단)이 주저항선 진지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⁶²⁾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중공군의 신속한 이동을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⁶³⁾ 공격 당일인 5월 16일 한국군 7사단과 미 2사단 지역으로 각각 중공군 2개 군 6개 사단이 집중될 때까지 적의 기도와 규모를 전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5·7사단의 돌파로 이어지게 되었고 3군단 퇴로가 차단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당시 미 2사단의 경우는 병력의 열세를 화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군의 경우는 1개 사단으로 6개 사단을 저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미 10군단과 3군단과의 전투지경선 설정이 잘못되었다.

한국군 3군단장은 미 8군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군단전투지경선에서 창촌-울전리-방내리-상남리-현리로 이어지는 군단 후보급로의 대부분이 미 10군단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 반면 3군단 작전지역에는 고작 내린천 연변의 용포-현리 구간뿐임을 알았다. 이에 3군단장은 후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단예비인 9사단 29연대로 하여금 1개 대대를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미 10군단장의 철수요구에 10군단장에게 항의를 계속하는 한편 미 8군사령부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때 미 8군은 오미재에 대한 경계조치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미 제10군단 작전지역인 점을 감안한 끝에 한국군 3군

62)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 548. 이때 8군 정보참모도 중공군이 양호한 도로 조건하에서도 병참선의 어려움을 겪는데 도로망이 결핍된 동부 산악지대로 대규모 병력의 투입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3일 정보원, 피난민,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대규모의 중공군이 서부 중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14일과 15일 이틀간 계속된 비와 잦은 안개로 인하여 항공관측이 불가능해졌으며 불투명한 시계는 지상 정찰도 어렵게 했다.

63) US Eighth Army Command Report.

단에게 “오미재의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였다.⁶⁴⁾

미국측 자료⁶⁵⁾에서도 전투지경선과 관련하여 미 8군의 소극적인 조치를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한국군 3군단 후보급로의 확보 문제로부터 최초의 악화된 상황이 작전 실시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⁶⁶⁾ 따라서 3군단의 경우 교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군단이 해체되는 수모를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 요인중 하나가 전투지경선 분할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3군단이 후보급로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했는지는 정확하게 조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5. 결 론

중공군은 5차 전역 2단계 작전에서 중동부전선의 한국군 4개 사단을 섬멸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최대규모의 반격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 초기 기습작전의 성공을 통하여 중동부전선에서 현리-창촌리-속사리 일대까지 돌파구를 확장하였으나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로 그 대가를 치렀다. 반면 유엔군은 전선의 일부가 돌파되고 30~65km를 물러났으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한 지연전을 펼침으로써 전투력의 큰 손실을 입지

6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서울: 서라벌인쇄, 1988), pp. 129-132.

65) “예상치 못한 중동부전선에서의 중공군의 공격에 있어서 상황을 악화시킨 점은 동쪽에 있는 그의 두 군단 사령관들이 작전지역 문제로 분열된 상태였다. 9사단으로 가는 유일한 보급로는 미 10군단 책임지역으로 연결된 단일 보급로 밖에 없었다. 한국군 7사단에서는 이 사소한 침범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Almond측에서는 유재홍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중공군이 국군 5사단과 7사단 사이의 지역을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이 중요한 보급로에 별다른 병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몇 시간도 흐르지 않아 중공군은 유재홍군단의 사단 배후까지 진격해 있었다.” In *Mortal Combat Korea, 1950-1953*, pp. 460-461.

66) 최초 악화된 상황이 작전실시간까지 이어져 상호 상황전파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요인중 하나였다고 추정된다.

않아 즉시 반격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군의 벙커고지와 운두령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중공군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공군은 중공군 특유의 작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기습작전 달성과 돌파 및 우회 전술을 적용함으로써 작전 초기 유엔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미국과의 전투를 통하여 화력의 열세를 경험하면서 장비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투근무지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전과확대 실패와 최초 정보판단 및 퇴로차단지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군 3군단 퇴로차단 후 전술적 승리를 작전승리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초기 중공군의 기습작전과 대규모 병력 집중으로 인하여 한국군 7사단 전방에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작전의 융통성 발휘와 적시적인 전투력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전술적 실패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작전승리를 달성하였다.

현리지역 전투는 피·아 작전지도의 중요성이 전술적 승리를 작전승리로 이끄는 데 얼마나 큰 요소인가를 일깨워 주고, 피·아 작전지도의 결과에 따라서 전쟁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승패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전형적인 전투였다.

(원고투고일 : 2008. 3. 14, 심사수정일 : 2008. 5. 27,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6·25전쟁, 작전지도, 현리 전투, 제5차 전역, 3원포위, 중공군, 유엔군, 평터화이, 밴플리트, 리지웨이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Operational Guidance during the Korean War -Focused on the Battle of *Hyeon-ri* Area-

Chung, Myung-bok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on the UN Forces' and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s operational guidance during the CCF's Second Phase of the 5th Campaign. After the UN Forces' across the 38th Parallel, the CCF decided to enter the Korean War. There were many purposes behind their participation of the war such as 1) to aid North Korea, 2) eliminating the suspicion of Stalin, 3) giving the CCF the experience of modern warfare, 4) accelerating the modernization of the CCF, 5) reconstruction of the Chinese economy, 6) strengthening of China to prepare for Taiwan's liberation, 7) joining UN, 8) to trade South Korea with the removal of the US Forces in Taiwan, 9) to lure the Kuomintang Forces to mainland, 10) eliminating the danger of US launching a nuclear attack or retaliatory actions against China, 11) to restore North and South Korea to how it used to be. But in regards of operational guidance it was essentially to extract the UN Forces from Korea so they can control the Korean Peninsula.

The CCF separated their progress into two periods-maneuver warfare period and the period of positional warfare. the Second Phase of the 5th Campaign was the last one used in the maneuver warfare period.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5th Campaign, CCF focused on annihilating four divisions (3rd, 5th, 7th, and 9th Division) of the ROK Armed Forces through the envelopment operations of *Hyeon-ri*, *Chimkyo-Bangneri* and envelopment of Soksari area. They also attempted to cut off the ROK Army III Corps' withdrawal routes by concentrating six divisions in the ROK Army 7th Division Area. During the early period, the UN Forces came against massive loss as the III Corps found their main supply routes cut off, but effective use of delaying tactics and the Eighth Army's calm response to the crisis enabled their forces to hold off the CCF and launch a successive counterattack and as a result the CCF damaged with a greatest number of casualty since ente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ir Second Phase of the 5th Campaign, *Peng Teh-huai* used maneuver warfare and annihilation tactics learned from the past to make up for their inferiority in artillery compared to the UN Forces. Through the tactical surprise attack by two armies they achieved their early objectives of penetrating at *Hyeon-ri* area which was the north-east side of the UN Forces' forward edge. However, some problems such as 1) not spending enough time for the preparation of the war, 2) misjudging the ROK Armed Forces' withdrawal routes, 3) not anticipating serious logistics problem, 4) unflexible tactics were found during this period.

Van Fleet, the Commander of the Eighth Army, at first struggled to deal with the enemy's surprise attack, but soon recovered himself and counterattacked the enemy through the mobility of the 3rd Division and tremendous use of artillery later named the "Van Fleet way Fire Rate". His counterattack was successive but also from this we can analyze his negatives such as 1) poor decision-making shown when cutting off the ROK III Corps' withdrawal routes, 2) misjudging the information given so that enemy could launch their surprise attack, 3) misplacing the boundary of battle area between the US X Corps and the ROK III Corps.

Second Phase of the 5th Campaign was the turning point for the UN

Forces to shift their position to offensive and ultimately became a decisive factor to enforce China to the negotiation table.

Key Words : The Korean War, Operational Guidance, *Hyeon-ri* Battle, The 5th Campaign, Envelopment, Chinese Communist Forces (CCF), the UN Forces, *Peng Teh-huai*, Van Fleet, Ridgway